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경로당, 공원벤치의 삶 'NO'

'OPAL족'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절에서 빛나네

'사오정' '오륙도'란 말을 아시나요?
손오공이나 부산을 연상하면 헛짚은 것입니다. 바로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자조섞인 유행어랍니다. 사오정은 '45세에 정년을 맞는 남자'를, 오륙도는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란 의미랍니다.

관광객들에게 불교 알리는 일 즐거워 "퇴임 불자교수들, 포교 적극 나서세요"

30년 직장 퇴직후 길상사 근무 자처 사찰 일이라면 밤,낮 구분 없어

◇송광사에 온 관광객들에게 벽화를 설명하는 곽종형 거사. 산사에서의 삶이 즐거워서 일까. 7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다.

◇이만성 거사가 길상사의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고 있다. 수행을 게을리 않는 이 거사는 일을 하면서도 늘 염불 · 주력을 한다.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 72세(2000년 통계청 발표)이고 2010년에는 76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년은 빨라지는데 수명은 늘어나니 인생 후반의 삶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러나 요사이는 경로당이나 공원 벤치에서의 삶을 거부하는 노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행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자 하는 노인들, 이른바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이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는 '다른 의미의 오팔족'이 있습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고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며 의미있는 노년을 보내는 불자들 말입니다. 은행, 정부기관, 교직 등의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사찰 행정을 돕고, 사찰정비, 신도 · 재정 관리, 수련회 준비 등 대 소사를 돌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 그동안 소홀했던 불교 수행도 열심히 합니다. 정년을 맞고 다시 사찰을 새로운 근무처(?)로 삼아 수행과 봉사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오팔족'의 선두주자가 곽종형 · 이만성 거사입니다.

'송광사 가이드' *곽종형* 씨

부처님들의 이름은 왜 다를까? 벽화의 내용은? 절에 가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불자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절에 들어갔는데 문화재 안내 간판만 읽고 나오면 왠지 허전합니다. 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에 가면 이러한 갈증이 풀려요. 곽종형거사(71)로 인해서지요. 지난 99년 진주 경상대 축산학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곽거사는 바로 송광사로 들어왔습니다. 송광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대표적인 고찰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의 단골코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르르 몰려와서는 건물이나 대충 보고 사진이나 찍고 가는게 고작입니다.

곽종형거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송광사의 역사와 특색, 문화재 소개 등을 자세히 해줍니다. 불교 지식도 해박하니 자연스럽게 불교포교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는 일요일엔 더 바쁘지만, '송광사 가이드' 역할에 자부심이 생기는 때도 그런 때입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송광사 불일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불일회의 크고 작은 일과, 템플스테이, 수련회 일도 처리하고, 설법도 합니다. 불국사 자원봉사자들, 광주 전남 관광가이드들에게 안내기법에 대한 연수를 시켜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요. 1969년 구산스님이 방장으로 있을 때 불일회 진주지회장을 맡고부터 송광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루 세 번 예불에 참석하고, 감로암이나 불일암까지 걸으며 사색하고, 참선하며, 불서를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는 그는 "대숲 바람소리를 들을 때는 내 마음도 대처럼 비워지는 것 같다"고 흐뭇함을 토로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신이 위축되기 쉬운데 조계산의 넉넉함을 닮아가는 것 같아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라면서요.

곽종형 거사가 두번 세 번 "퇴임 불자교수들은 포교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지식인이고 구변(口辯)도 좋을 수 밖에 없는 교수들이 퇴임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 일을 하며 동시에 자신의 수행을 깊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생이 행복하고 보람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길상사 도량정비사' *이만성* 씨

<무소유>의 법정스님이 회주로 있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7천여평 곳곳에 나무가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해 있지요. 도량이 유난히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도영거사'라 불리는 이만성거사(65)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 30여년 근무했던 제일은행을 정년퇴직한 이거사는 그해 10월 길상사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가까운 삼선교 근처에 사는 이거사는 새벽 3시면 길상사에 도착합니다. 예불을 봉행한 후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지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겨울에 눈이라도 풍성히 내린다면 이거사의 옷은 몇 번이나 땀으로 흠뻑 젖곤 합니다. 도량 청소 · 보수, 시장보기, 심부름 등 구석구석 찾아서 일합니다. 빗자루로 쓸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화초에 물을 주면서 주력(呪力)을 합니다.

제일은행 불교회의 산파 노릇도 했던 이만성 거사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 주는 일을 즐겨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입니다. 사찰에서 온종일 생활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답니다. 길상사 주지 덕조스님은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며, 절에서 봉사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분이라 도영거사의 신행생활은 다른 신도들의 귀감이 된다"며, 지난 2001년에는 사찰종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치된 추천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귀띔했습니다.

길상사 관리장 이종인 거사도 "사찰일이라면 밤중에라도 뛰쳐나오는 분"이라며 무슨 일이든 철저하며 완벽하게 하는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난다고 말하네요.

"일요일에는 도봉산 원통사에 같이 올라가곤 합니다. 1시간여 걸리는데 걸어 올라가는 동안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가는 사람이 도영거사입니다. 새 먹이도 항상 준비해 도영거사만 나타나면 새들이 반가워 해요."

감원이다, 명퇴다 불안해 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만성 거사가 한마디 하겠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오로지 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잖아요. 또 쥐도 고양이를 본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것만 생각하지요. 그렇게 오로지 일념(一念)으로 일하세요. 대충대충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1인 2역 3역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그 어느 곳에 있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글=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모기기피방향제

스님,
무더운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영원한 불청객 모기들도 찾아옵니다.

스님 어떻하죠?
모기약을 뿌려도 그때뿐이고
절 전체를 모기장으로 둘러 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고민되는 것은
모기도 생명인데 무조건 죽일 수도 없다는 것 아닐까요?

이제 돌려보내세요.
지긋지긋한 모기를 돌려보내세요.
"우리 절은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넌지시 충고를 하면 모기가 간답니다.
그 모기를 향한 충고, 바로 써브라임이 책임집니다.

써브라임은 모기들은 싫어하고 사람에게는 좋은 친환경 기능성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써브라임을 사찰의 방이나 마루에 놓으면 모기는 도망가고 좋은 냄새만 남는답니다.

스님! 써브라임으로 올 여름 모기를 살생해야 하는 걱정은 훌훌 털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에서 개발한 자연주의 모기 기피 용품이 있으니까요.
제품의 확실한 효능은 카다록을 참고 하시고 신뢰가 가시면얼른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요.

이상품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개발한 물질로 써브라임과 산학공동개발 한 상품입니다.

특별보급가 ₩39,800

상품구성
* 방향제 6pcs + 향초 2pcs + 스프레이(100ml) 1pcs

모기기피방향제
* 규격 : 35g(30일용 - 1일12시간 사용기준)
* 천연 모기기피 물질을 사용
* 無전원코드, 자연발향상태를 이용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無알콜, 無살충제 제품
* 집안, 차안, 텐트안, 화장실 등에 사용 가능
* 2002년 국민일보, 일간스포츠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

모기기피향초
* 규격 : 35g(약10시간/개당)
* 천연물질 사용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無알콜, 無살충제 제품
* 천연팜유 사용으로 장시간 사용가능
* 그을음이 없다

모기기피 코팅제
* 규격 : 100ml(약700회 분무가능)
* 천연 모기기피물질 사용
* 無알콜, 無살충제, 無GAS
* 수용성 마이크로캡슐로 전환하여 향의 지속성 유지/장시간 모기기피 효과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실내사용 : 창문, 커튼, 벽, 문, 침구등에 사용
* 실외사용 : 텐트, 배낭, 등산회, 낚시터주변, 의류등에 4-5회 도포 사용

설치방법 및 모기특성
* 출입문 입구나 창문쪽 보다는 바람의 흐름이 가장 적은 곳에 두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는 사람의 피부에서 발산되는 땀냄새, 화장품냄새 등이며 신체내부의 운동량이 활발하여 발산되어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나 유아 · 아동의 젖산냄새, 노약자의 냄새 등도 모기의 주된접근 대상이 됩니다.

상 품 구 매 처
마하몰 (www.mahamall.co.kr)
☎ 02)732-1520